

▶ 가족자원경영

농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⁵⁾

이 연 숙 (고려대학교 사범대 가정교육학과 교수)
 이 기 영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김 외 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조 희 금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이 승 미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
 한 영 선*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우리나라 농촌 가정에서는 주로 성별에 기초한 노동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의 연구(2006)에 의하면 농가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 분담률은 농번기에 남편이 11%, 부인이 89%, 농한기에 남편이 20%, 부인이 80%로 나타나 농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부인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농촌 가정의 남편을 대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남편과 참여하는 않는 남편 사이에 인구사회학적·인지적·시간적 변인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 농가 남편들이 가사노동 참여를 결정할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8개 도의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당 주작목 비율을 고려하여 총 400가구를 표집하였다. 계절에 따른 농촌가정의 시간사용 변이를 고려하여 1차 조사는 농번기 기간인 2005년 6월 17일부터 6월 30일에, 2차 조사는 농한기 기간인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에 실시되었다. 1차 조사에서 농업인 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족원 시간일지표 1100부 및 가구주 설문지 400부가, 2차 조사에서 농업인 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족원 시간일지표 1000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농번기 총 1048부, 농한기 총 999부의 시간일지표 및 설문지 400부가 회수되어 그 중 부부 시간일지표 325셋(set)과 설문지 325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test,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번기에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남편집단과 비참여 남편집단은 학력, 자녀수,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농한기에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남편집단과 비참여 남편집단은 주작목, 수면시간 부족 인지정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농번기에 농가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때, 남편의 농업노동시간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농가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데 있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남편의 농업노동시간이 감소할수록,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넷째, 농한기에 농가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때, 주작목, 수면시간 부족 인지정도, 남편의 농업노동시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농가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데 있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주작목이 미맥인 남편집단이 과수, 시설원예, 축산을 주작목으로 하는 남편집단에 비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았고, 수면시간 부족 인지정도가 낮을수록, 남편의 농업노동시간이 감소할수록,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농가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농사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농번기에는 남편의 농업노동시간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만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결정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번기의 특성상 대부분의 남편들이 농업노동에 참여해야 하므로 어떤 변인의 차에 관계없이 가사노동 참여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한기에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시간적 변인 외에 수면시간 부족 인지정도나 주작목 등의 변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밝혀져 농번기보다 농한기의 가사노동 참여가 더 개인적 선택사항임을 알 수 있다.

5) 2005, 2006년도 농촌진흥청의 농업특정과제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음